

한국주거의 재조명

주거 공간 변화 속의 한국 여성과 남성



박 선 희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들어가기

사람이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세 가지 행위는 두말할 것 없이 먹는 일, 입는 일, 자는 일이다. 여행을 가서 멋진 호텔을 꿈꾸는 일은 바로 내가 지불한 액수만큼의 수준에서는 적어도 누군가가 준비해 준 최상의 식사와 침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호텔경영과 손님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 많은 물적 관리 및 분야별 역할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에 대한 경비이다. 이에 비하여 집이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행복을 창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나름대로의 책임과 소명이 요구된다. 돈만 있다면 누군가 늘 관리해주는 호텔과 같은 집을 꿈꾸지만 현실은 반대로 돈을 아껴 더 나은 내 집을 꿈꾸거나 자산가치의 증식을 목표로 하다보니 일상적으로는 물적, 인적 투자의 절약이 요구된다. 집의 물리적 소유와 정서적 획득은 경제적 수준이 아니면 각자의 심리적 적응 수준과 관련 있을 것이다. 집이란 항상 그렇듯이 적어도 생활의 생기生氣를 위한 기능적인 면에서는 대개 가족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전통적 관념에 의한 집에서의 기능성이란 가장의 접객 장소인 사랑채를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회적 접객과 가문의 의례라는 형식이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일상 행위로서 표면에서는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과 이의 공

간적 사용주체인 여성들에게는 집의 의미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단지 가족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는 내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심미적 표현도 확대가족과 가문을 위한 다산이나 번영에 치우쳐 있었다. 이에 비하여 집의 대표이자 상징적 행위의 주체인 남성들은 여성과 같은 목표인 가족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되 집은 자신의 외향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위치의 확인 및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집은 주로 남성을 위한 구성체계로 표면화되었고 여성은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약한 보조자였다. 경제권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집안 소소한 일상용품도 모두 남성들이 구입하였다. 그러나 구한말의 근대화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가 되면서 여성의 교육이 확대되고 경제개발의 회오리바람과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일념아래 남녀구분의 고정관념이 약해지면서 여성의 역할과 존재도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60년대 이후 활발해진 경제력 증진 목표 인식의 일환으로 민간의 금융고리 역할을 한 계모임 등은 당시 기혼 여성의 일자리가 별로 없었음에도 간접 저축의 수단이 되어 수익창출을 하거나 목돈 마련으로 남편 사업을 돕거나 하였다. 주부들이 가정경제의 일익에 기여를 하면서 도시 여성의 경제권에 대한 파워도 커지게 되었다. 이는 여전히 체면을 중시하는 남성들이 짐짓 모른 채 하는 사이

한국주거의 재조명

서울을 중심으로 불어 닥친 개발 붐에 편승하거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린 부인들이 쌓아올린 금자탑을 내심 자랑하거나 또는 이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회 분위기는 여성들의 의사결정 파워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산업사회가 중시하는 사회적 특성과 환경에 한국인들 대부분 동참하고 수용하였기에 가능한 변화였던 것이다.

한편 이렇듯이 급변해온 사회 정세 속에서 한국인들의 집도 엄청 변모하였다. 그 중에서 본 고는 보편적이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을 끄집어 내어 보고 싶었고 그 중 선택한 것이 남성과 여성들이 지닌 주거생활의 극명한 대조적 모습이었다. 이는 문화인류학적 젠더라는 시각이기 보다는 일제강점기에 정체되어버린 구한말의 보수적 생활방식이 어떻게 현대에 와서 이토록 극명하게 변화였을까? 에 흥미가 생겼다. 그래서 분석과 논의보다는 그 시작 단계로 이러한 현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정리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본 고의 구성된 글들이 어찌면 서로의 연계성이 적을 수 밖에 없음은 이 글이 심층적 학술연구가 아니라 몇 개의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회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전개한 때문임을 양해를 바라고 싶다. 그 이유는 주거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필자의 생각 때문이다.

■ 조선시대 남성 중심의 집 -선비들이 추구한 이상향-

조선시대는 사람에 대한 인륜, 자연에 대한 순응, 사물에 대한 검약 등 무엇보다 사람이 지녀야 할 삶의 정신적 가치가 생활의 기본 개념이었고 우선시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조 선비들은 집에 대한 의식도 집의 생활적 기능보다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집의 터 및 주변 자연환경이 생성하는 기운이 사람과의 감응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더욱 중요하였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지침서인 홍만선(1664-1715)의 산림경제는 유증임이 당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반세기 후인 1766년 증보 산림경제로 다시 편찬되었다. 이 책은 조선 중기의 삶의 의식과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 중 “천지만물 가운데 새와 짐승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 사람이 되었으나 인륜의 도와 고금의 일을 알지 못하면 꿈틀거리며 걸어가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 하니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힘쓰고 힘써 열심히 독서해야 하느니라.” 라는 귀절이 있다. 이와 같이 선현들의 기록에 의한 사람의 도리와 삶의 역사에 대한 배움을 통하여 일상적인 정신 수양을 지향하고 있었다. 집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관점과 같은 맥락을 두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의 전통 주거에 대한 자료 중 누구나 알다시피 조선의 실학자 풍석 서유구(1764-1845)가 집필한 「임원경제지」는 당대 주거에 대한 생활 및 이상적인 의식이 담겨져 그 가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책은 그동안 총 16개 분야 중 집에 관한 이운지, 상택지, 섬용지 중 일부분만 번역되어 소개되다가 2005년에야 이 세 부분을 집약해서 알기 쉽게 번역한 책이 출간되었다¹⁾. 그러므로 오늘날 한문을 잘 해독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후학들이 비로서 전통 주거에 대한 사료의 접근과 이해에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게 한 것이다.

위의 책을 통해서 안대회²⁾는 “집이라는 인간의 거주공간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옛 선인들은 집 그 자체에 대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집 자체를 논의선상에 올려놓고 과고 든 사람이 서유구요, 그가 쓴 책이 「임원경제지」다. 「임원경제지」라는 19세기가 낳은 이 위대한 저술은 입고 먹고 머물러 사는 의식주 자체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행위에 대한 종합적 시각에서 씌웠다. 따라서 서유구는 집을 독립된 개체로 다루지 않고, 한평생 인간이 영위하는 복잡다단한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1) 서유구저, 안대회역(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들베개
2) 서유구저, 안대회역(2005), 앞책

한국주거의 재조명

중요한 필수품의 하나로 다루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유구가 지닌 집에 대한 종합적 관점과 미학을 1)자연친화적이면서 편리한 삶을 위한 주거공간, 2)풍수설의 적용과 합리적 태도, 3)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개발, 4)실용과 멋의 조화라고 정리 제시하였다. 아울러 서유구는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에 최고수준의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이 생각한 주거문화를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임원경제지」에서 서유구는 여생을 보낼 집의 장만에 대하여 “명산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대신에 산봉우리가 돌아서고 산언덕이 굽이치는 곳이나 숲이 아늑하고 개울물이 여유 있게 흘러가는 곳을 고른다. 그곳에 땅 몇 마지기를 개간하고 집 몇 칸을 지은다음 무궁화를 심어 울타리로 삼고 이엉을 엮어 정자를 만든다.....” 라고 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일상의 집 이외에 선비들이 즐겨 애용하던 별서와 정자들과 같은 비일상적 주거로서의 공간들이 있었다. 이러한 공간은 그동안 대부분 선비들이 모여 계절에 따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읊기 위한 시회나 고회를 열고 휴식과 친목을 도모하는 일시적 공간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지속적인 거처공간으로도 활용되었음이 나타났다. 이종묵³⁾은 조선시대 주거 공간을 도성 안 원림을 이룬 재력가의 집, 은둔을 원한 선비들의 집과 산수의 정서를 추구한 별서 등으로 조선시대 거주의 의미를 문인들이 사랑한 땅과 삶을 통하여 해석했다. 특히 별서와 정자를 애용한 문인들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실려 있다. 그 중 18세기 조선 후기 최대 문벌 가운데 하나였던 해주 오씨는 서울의 종암동에 별서를 갖고 있었다. 현종의 부마였던 오태주는 숙종과 시우詩友였다. 1708년 숙종이 오태주에게 시를 내렸는데 바로 답이 오지 않자 그 사연을 물으니 별감이 그가 별서에 나가 있어 바로 답을 못한다고 아뢰자 숙종은 이러한 산수를 즐기는 오

태주를 축하하는 시를 한수 지어 보냈다. 이와 같이 해주 오씨 별서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대를 이은 이 집안 선비들의 휴양장소이자 공간이었다. 종암별서를 가장 사랑한 오연상은 종암에서의 삶을 종산잡언에 담았는데 “내가 이해 종산으로 나선 것이 세 번이다. 사계절의 빼어난 경관을 보았으니 산수의 볼거리를 굳이 먼 데서 구할 필요가 없다. 몸이 한가하고 마음이 맞으며 땅이 정신과 조화를 이룬다....., 옛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맑은 여름 밤 목욕을 하고 조용히 앉아 달을 바라보면 뜻이 절로 유다르다.....”⁴⁾

이와같이 조선의 선비는 별서에서 산수의 변화와 계절에 의한 경관을 아름다운 감상으로 한정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심신을 수양하는 합일됨을 추구하려는 정신적 거처로서 별서를 사용하였다.

서유구⁵⁾는 명산과 아름다운 물가에는 별장을 둔다 하고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성정을 활달하게 만든다. 거처하는 곳에 이러한 산수가 없으면 사람을 조야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막힌 곳이 많다. 사람이 집을 버리고 지렁이처럼 흙을 먹고 살 수 없는 이상에는 산수의 아름다움만을 취하여 살 수는 없다. 그러니 차라리 비옥한 땅이 넓게 펼쳐지고 지리적 조건이 좋은 장소를 택하여 거처를 정한 다음에 10리나 2,30리쯤 떨어진 곳에 따로 명산과 아름다운 내가 있는 땅을 매입한다. 그리하여 홍이 일어날 때에는 때때로 그곳을 찾아가 노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도록 지속할만한 방법이다.”⁶⁾ 고 하였다.

서유구는 또한 집의 위치의 고아함과 속됨이라고 한 장에서 “집과 방의 위치를 배열하는 법은 번쇄함과 간소함에 따라 서로 같지 않고 추위와 더위에 따라 각각 다르다. 따라서 높은 당堂, 넓은 사樹(정자사, 누마루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와 굽이진 방, 구석진 내실은 제각기 적절한 위치가 따로 있다. 예컨대 도서와 정이(청동기로 만든 술, 골

3) 이종묵(2006), 조선의 문화공간, 휴머니스트

4) 이종묵, 위책, 4책, 153-156쪽

5) 서유구저, 앞책

6) 서유구, 앞책, 150-151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1] 조선조 선비들 이상향의 장소 정자

동품) 따위도 진열하는 장소와 배치하는 법이 네 격에 맞아야 비로소 그림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과 같다. 윤림당과 청비각에서 키 큰 오동나무와 고풍스러운 바위 가운데 깨안도 하나. 침상 하나를 놓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이 풍치를 상상하게 하여 참으로 정신과 뺏속이 다 같이 상쾌함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므로 운치를 지닌 선비가 거처하는 곳은 문에 들어서기만 해도 일종의 고아함과 속됨을 벗어난 아취를 바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⁷⁾ 고 하여 당대의 공간에 대한 제도적 인식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간의 고아한 품격과 수준에 대한 해석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선비들은 집 자체의 기능보다는 자연의 풍광이 좋은 곳에서 맑은 기운이 형성되고 이를 통하여 심신의 다스림을 취하고자 하여 집의 생기와 거처의 기운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므로 거의 순환이 되는 집의 물리적인 터를 중요시하였으며 일상 집기도 그러한 관점의 질서있는 배치를 권장하였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와 선학들의 자연관을 수용하기도 하였지만 일상 선비의 행위가 생활 일부에 직접 참여하는 일들은 무관하고 학문과 시서화의 교류 등과 같은 고아함과 품격에 어울리는 개념적 거처공간을 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하여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자녀양육과 제사 등의 의례 및 의식주 가사전담에 하루를 모두 바치는 조력자 즉, 개념과는 거리가 먼 행위 중심의 생활자들이었다. 즉,

집에서의 일상행위가 한쪽 여성에게는 극단적인 가사노동의 장인데 비하여 한쪽 남성에게는 가장이 이루어야 할 사회적 신분과 가치 속에서 집이 가문이라는 집단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개념적 공간의 장이었던 아주 극명한 대비가 형성된 시대였던 것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지만 조선시대의 여성에게 있어서는 전통 한옥이 일상행위의 공간으로서 기능적으로는 매우 부족하였으나 역으로는 공간영역과 구획이 주는 심리적 차단과 비밀스러움으로 인한 소통의 기대 등으로 하루라는 시간을 채워줄 만큼의 정서공간 역할로도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남성에게는 개념적 정서적인 집이라는 곳이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타자로부터 자기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는 구속의 장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 조선조 선비들은 사랑채 공간을 얼마나 좋아 했을까? 아마 별로였을 것이다. 왜? (답 ♯은 뒤에)

■ 해방 이후 집의 근대화와 여성의 희노애락 -전주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혼란과 소용돌이를 벗어나 해방 이후 50여 년간의 집과 가족의 급격한 외형적 변화는 한국의 모든 지역들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도시로서의 전주가 지닌 지역적 역사와 문화적 특성은 타 지역의 도시는 물론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의 변화와는 많은 시간

7) 서유구, 앞책, 20-22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적 공간적 차이가 있어왔다.

전주시는 본래 전원도시의 성격이 짙었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변 근교 농촌지대의 흡수로 지역 확장이 이루어져 농업경제활동은 시의 산업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57년 시의 확장으로 면적이 4배나 늘어났고 새로 편입된 군부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대였다. 1960년대 초까지도 시의 산업구조는 공업 분야 중심의 제조업이 미약하였으며 1970년대 전복의 취업구조를 보면 농림수산업이 65.1%였다⁸⁾. 그러다가 1967년도의 공단 입주를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공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시의 공업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1972년에 시작한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은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파급되어 특히 부영의 개량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초 프로판가스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하여 연탄사용이 줄어들었으며 1970년 최초로 지은 아파트가 불과 36가구이던 것이 1975년에 356가구, 1980년에는 10배가 넘는 4천7백84가구가 지어져 전주소 드디어 공동주택이 주거의 한 유형으로 열리게 되었다⁹⁾.

1950년대 말 19공탄 스토브(제일합석공업사제품)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고 군정 후 전주시의 60년대 행정은 주로 사회의 불안 요소를 완화하고 도시위생 및 건설 정비를 중심으로 하였다. 1964년도에는 석유 반사식 방안 난로가 출현하였으며 1965년도에 라디오와 냉장고 제품의 광고가 신문에 등장하였다. 1966년도에 프로판가스의 사용이 소개되었으며 1968년에 석유콘로 및 가스쿠커가, 1969년에 텔레비전 및 수입 자동세탁기, 믹서가 광고되어 앞으로 다칠 가전제품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주의 일반적인 주거유형은 도시한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73년 전북일보¹⁰⁾(2월22일자)에 기재된 마이홈 작전의 한 성공사례에 나타난 집도 도시 한옥이었다.

1972년 전주 최초의 아파트(공무원아파트17평형 60세

대) 착공이 시작되었다. 이 때에는 새마을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특히 부영의 부뚜막 개량에 시멘트가 대량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초반에는 ‘문화촌’과 같은 단독주택을 위한 택지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5년 13평형의 대단지 주공아파트 설립이 AID차관으로 계획되었다. 전주권에서는 1976년 까지도 주택난이 심각하여 인근 3시의 주택 부족율은 4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80년 전주 최초의 관광호텔 및 고속터미널이 준공되어 서울과의 일일생활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전북예술회관이나 전북여성회관 등의 사회의 문화 복지시설이 정책적으로 확충되어졌다. 19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공동주택 분야에 참여한 민영건설회사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동주택 건설 참여도가 크게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였고 이어 고층화 및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단독주택도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인 양육유형이 신축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아파트 건설이 약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 서신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전주 시도 도심과 부도심의 분산 형태로 확장되고 이 시점 전후로 외곽지역이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서울 소재 회사의 유명 할인점이 개점되어 전주시민의 쇼핑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 전주지역 여성의 주거 경험과 생활변수

본 장은 필자가 조사한 연구보고서¹¹⁾를 중심으로 발췌하고자 한다.

1970년대 서울은 부영의 입식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전주에서는 아직 도시한옥의 거주가 일반적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주 시민들은 양육내지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환경에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8) 전주시(1997). 전주시사

9) 앞글

10) 전북일보, 1950년-1980년

11) 박선희외(2004), 집과 가족의 문화사, 전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보고서 이 중 일부 내용은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006년 12월호에 게재된 바 있다.

한국주거의 재조명

무엇보다 부엌 공간의 입식화와 새로운 설비 도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간 변화의 경험은 주거에 대한 가족들의 새로운 시각과 판단을 형성하고 나아가 집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전주에서의 주거 유형에 따른 거주 경험은 다양하지 않다. 1980년의 전주의 아파트 건립 재고량은 불과 4,784세대이었으며 1984년도에도 1만 세대가 넘지 않았다. 1988년도에 가서야 2만세대가 조금 상회하였으며 1993년도에 단독주택의 수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주에서는 1989년 및 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가구 별 아파트 거주 경험이 접근 가능한 양적 공급의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구술자들의 거주 경험 모두 도시형 한옥이나 양옥 또는 반양옥¹²⁾이었다. 1980년대 혼인 세대들의 거주 이동을 보면 1990년 중반에 아파트 거주 경험이 시작된 사례가 많았음이 이를 반증한다. 구술자 대부분 혼인 이후의 이주에 따른 가옥 거주 경험은 한옥→양옥이었으며 한옥→일식가옥→양옥(이원효)이었으며 1980년 전후 혼인을 한 간접구술자들에서 양옥→아파트의 거주 경험이 나타났다.

가옥과 부엌공간의 변화에 관련된 해방 이후 여성 생활 문화의 주요 변수들은 가족수와 가족관계, 경제, 자녀교육, 취사연료 및 난방방식, 그리고 가전제품 등이었으며 특히 부엌 공간과 설비 변화의 정서적 효과와 의미는 따뜻함과 편리함이었다. 가족수는 주거공간의 방 사용과 수요에 중요하였고 가족관계는 생활의 주체자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는데 특히 시부모와의 동거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 시절에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시어머니에게 있었지 며느리인 구술자들(정정순, 김정순)에게는 거의 없었다. 동거는 하되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박덕순)에는 남편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따라야만 하였다. 시부모 없이 핵가족으로 시작하고 남편이 직장일로 바쁜 경우(주연자) 생활재 구입이나 부엌 및 설비의 변경에 주부는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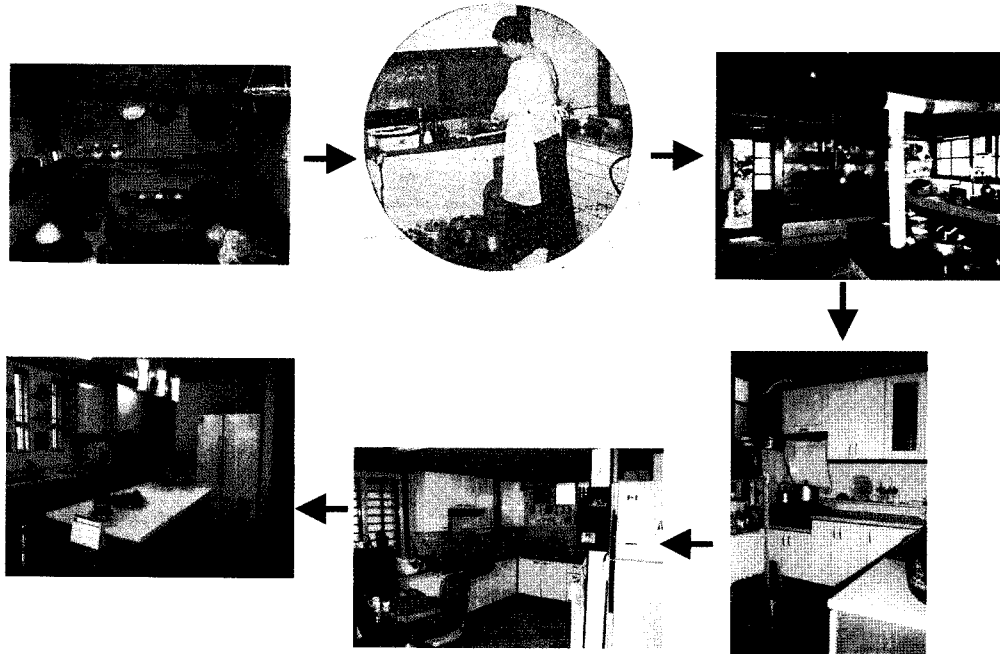
경제는 거주 공간의 확장과 가옥의 이주에 주요 변수이었다. 경제 소득에 여성이 도움이 되는 경우(고영자) 가전제품의 구입이나 설비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쉽게 지지를 얻으며 의사결정도 수월하였다. 새로운 집을 얻게 되면 방을 임대하여 가계소득의 증대를 꾀하는 방식을 우선 취하였고(박덕순) 그래서 가옥의 규모나 방은 담장 쪽으로 확장되어졌다(주연자, 김정순).

취사연료와 난방방식은 특히 부엌의 구조 개선에 큰 상관성을 가졌다. 연탄보일러는 집약된 난방방식에 의한 가사노동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가스레인지 사용은 곧 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석유보일러의 도입으로 인한 취사와 난방의 완전한 분리는 부엌의 실내 입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전주여성들의 주거경험은 한옥-양옥(엄밀하게는 현대가옥)-아파트의 순이 많았으며, 부엌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주요변수는 취사연료와 난방방식의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여성의 개인적 역량보다는 구술자들 당시의 주생활을 이룬 가족형태가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여성들이 공간 및 설비의 개선이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직접적 참여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어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보수적 가족규범에 의한 주생활 특성이 지속적이었음을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취사방식 개선용으로 나온 회사의 다양한 가전제품은 부엌공간의 확장과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칼라 텔레비전,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일련의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부엌과 식생활 개선을 동반하는 것이었으며 가사노동 과정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김성희(2002)는 이들 상품과 기기에 의해 주부의 가사노동이 감소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여 주부 혼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고 새로운 노동이 부가되면서 주부의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가정기기 광고를 통하여 여성이

12) 반양옥의 거주자(고영자)는 이 집이 처음 이사 온 당시 그대로인데 한옥 슬레이트기와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을 슬라브처마로 에워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내부 공간은 양옥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듯하다.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2] 단독주택 부엌의 변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전통부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후)

취사 과정 자체를 즐겁게 가족들에게 사랑이라는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속화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요구가 커진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2. 부엌의 근대화 혁명과 여성의 인식

부엌은 여성에게 어떠한 공간인가? 조선시대에 이어 일제강점기까지도 여성들은 집안의 가사생활이 삶의 모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여기에는 반가의 며느리나 일반 서민의 가정주부나 큰 차이가 없었다. 해방 이후 여성도 교육의 평등과 확대에 참여하고 시대적 기술변화와 더불어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책임과 역할은 여성의 몫이었다.

필자가 가끔 떠오르는 어느 여성분이 있는데 아마 '80년대 어느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 대학 교수부인인 A씨가 하던 말 “우리 집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살던 집은 한옥이었어요. 아파트에 가고 싶어도 어머니가 절대

원하지 않으셨지. 그래서 그냥 살았는데 어느 겨울날은 늘 추운 부엌에서 일하다보니 내 발이 동상에도 걸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춥고 힘들었는지....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로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온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던지...”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든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부엌공간의 개선과 변화는 여성의 삶과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 곳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의 60년대까지의 가옥 유형이 도시한옥이었으나 당시 한옥이건 양옥이건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외부에 설치되었으며 부엌은 연탄을 사용하는 아궁이였고 바깥 마당에 수도가 있었으며 방마다 별도의 구들을 지닌 난방방식이였다. 이 시기의 서울은 상류계층이 부엌 실내 입식화가 시작되었고 중류층은 연탄 아궁이로 개조하는 시점이였다.

이에 대한 것은 전주 문화촌 사례조사¹³⁾를 보면 부엌과

13) 박선희, 앞글

한국주거의 재조명

주거의 변화를 비교적 잘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은 1960년대 말 택지가 조성되어 단독주택이 신축되기 시작한 비교적 중산층 이상의 신흥 주거지역이었다. 2004년 조사 당시 문화촌의 주택 119 가옥 중 106채(89%)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며 이 중 84%는 1970년 전반기에 지어졌다. 당시 흥미로웠던 일은 이 문화촌 지역에 양육과 도시한옥의 블록을 조성하여 택지를 구입할 때 거주자들이 자신의 생활양식이나 주거에 대한 가족들의 선호가치에 따라 양육을 지을 것인지, 한옥을 지을 것인지를 선정하여 해당 블록에 신축할 수 있었고 지금은 혼재되어 있지만 어렵게 이 두 개의 주택유형이 경계지어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문화촌 여성들이 기억하는 부엌공간과 가사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주요 변수는 취사 및 난방의 대체연료 및 이에 따른 설비변화, 그리고 작업대의 입식화였다. 1960년대까지 구술자 대부분의 부엌은 취사와 난방이 겸하고 있었으며 연료는 연탄사용이 많았다. 1957년 선을 보인 19공탄 스토브는 나날이 값이 오르는 장작의 대체 연료에 희소식이라는 기사가 보도(전북일보 12월 12일자)되었으며, 이 후 연탄은 부엌의 주요 연료로 자리잡게 되었다. 부엌에 대하여는 위생적인 공간이 되도록 시멘트 마감을 권장(전북일보 1960년 3월 10일자)하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 석유가 또 다른 대체연료로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66년 연탄기근이 심각한 사회상을 보도하였고(전북일보 2월 20일자) 다음달에 프로판가스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전주에 석유곤로가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난방과 취사의 분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석유곤로의 사용은 독한 연탄가스를 덜 접하고 취사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으며 이후 70년대 후반 프로판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부엌용 가스레인지가 나오기까지 중요한 부엌 설비였다. 한편 대부분의 부엌이 허리를 많이 굽혀야 하는 낮은 부뚜막이나 작업 구조를 떼내 비하여 건축주의 진취적 사고에 따라 신축 처음부터 부엌의 입식 작업이 가능하게 한 사례는 김정순, 박덕순의 사례이다. 이들 중 김정순은 당시 시어머니가 집을 신축하여 고창에서 모두 전주로 이주하였는데 부엌에 입식 개수대를 만들었으

며 박덕순도 1974년 이사 당시의 집에 입식 개수대가 설치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정정순도 77년 이주 당시 입식 개수대가 있었음을 구술하였다.

부엌의 실내 입식 개조의 큰 변수는 연탄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의 교체 사용이었다. 대부분의 집이 취사와 난방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대체 연료에 의한 취사 방식의 변화가 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주요 전환점은 연탄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로의 교체 시점으로 이 시기는 집의 전면적 개조가 많았다. 연탄보일러 사용 시점까지는 부엌 내의 설비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였는데 기름 보일러로 교체할 때에는 집의 전면 개조에 의하여 부엌의 실내 입식화라는 공간 구조의 변화가 대폭 발생하였다. '70년대 후반 이후 신축한 집은 처음부터 주방이 실내 입식의 형식을 띠었다(김진성:1978년, 조진아:1980년, 이현진:1981년). 기존의 집을 개조하기 시작한 부엌의 실내 입식화는 집집마다 약간씩 차이가 보이지만 이형승 집은 1980년에 연탄보일러로 교체함과 동시에 부엌의 바닥을 높이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였으며 실내 연결방식으로 개조하였다.

1980년 전후 연탄보일러의 도입은 방마다 연탄을 갈아야 했던 주부들의 일손을 한결 덜어주게 하였는데 필자 조사의 구술자들 모두 남편이나 가족이 연탄갈기를 도와 준 적은 별로 없었다. 1980년 전후 신축한 집이 아닌 이전의 집들은 대부분 부엌개조를 하였는데 이는 당시 개조비용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는 큰 일이었다고 그래서 개조 시기는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원호는 '88년에 개조하였고 정정순도 80년대에 하였으나 잘 기억을 못했으며 김정순은 '89년, 고영자는 조금 늦어 '90년대 초에야 개조를 하였다. 이에 비하여 당시 모대학 교수였던 엘리트 계층인 전숙희는 1972년 문화촌에 가장 큰 양육에 이주하였는데 70년대 후반에 보일러 설치를 위한 전면 개조 및 부엌을 실내 입식화하면서 가정과 교육자로서의 실천적 측면에서 작업대를 'ㄱ'자 유형으로 설치하고 거실과 맞은편으로 개방 통합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1970년 우리나라 도시의 부엌 입식율이 18.0%이던 것이 1985년경에야 50%를 넘었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3] 문화촌의 개조된 부엌의 모습과 여전히 가사노동의 한 영역인 세탁기가 정당한 제 자리 없이 외부공간에 설치되어(중앙 사진) 있다.

다는 통계적 보고(통계청, 1988)와 견주어 보면 전주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부엌의 실내 입식화는 '80년 이후 아파트의 양적인 폭주와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부엌의 전환 의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는 아파트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었으며 가전제품의 양이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전주 구술자들에서의 부엌 공간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매우 집중적인 변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형을 가능하게 한 주요 변수들은 가옥의 대체연료에 의한 난방설비와 시멘트라는 건축자재, 그리고 아파트 공간 평면의 등장과 가전제품이었다. 물론 이러한 공간 설비의 변화 시점은 가옥의 유형과는 별개로 구술자들의 가족 내에서 형성된 개인적 역량과 시집의 가족구조와 특성, 그리고 남편의 직장 및 경제문제가 복합적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특히 문화촌 4명의 구술자들(오, 정, 박, 김)은 혼인 이후 전통적 확대가족의 보수적 형태를 짚어지고 가는 주인공들로서 비록 사회의 중산층 및 그 이상에 속하기는 하지만 평균 3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고 스스로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부분적 지원내지 전담까지도 담당해야 했던 친족의 경제구조까지도 연결되어야만 하였다.

부엌공간의 개조에 대한 전주 여성들이 가장 큰 기능적 의미와 주요 상징은 바로 따뜻함과 편리함이었고 그러한

변화만으로도 감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현모양처에 대한 헌신적 자세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엌을 개조하여 덤으로 얻은 식탁-취사와 입식 상차림을 한 공간에서 가능하게 한-에 대한 은근한 기쁨을 미소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주거생활의 근대화이자 소리없는 민주적 생활방식의 이행과 변화였던 것이다.

■ 현대 부엌설비의 기능적 진화와 공간인식

90년대 이후 부엌의 설비와 성능은 집의 주요한 선택 지표가 되었다. 집의 인테리어 개조는 부엌과 거실을 중심으로 탈바꿈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주부들이 가장 원하는 공간개조는 부엌이었다. 여성학이나 인류학자들은 여전히 여성들의 가사담당의 속박의식 및 행태를 지적해왔지만 현모양처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보수적 가정 분위기에서의 주부들은 마냥 행복해왔고 가사조력을 하건 못하건 남성들은 실내 리모델링에 대하여 형편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만큼의 적극적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1985년 한 주택잡지 조사¹⁴⁾에서 3개 도시(서울, 인천, 수원) 거주 여성들의 44.5%가 주방을 가장 관심이 큰 공간이며 다음이 거실(25%), 다음이 침실(23.7%)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남자들은 45%가 거실을 꼽았고 다음이 침실(24.5%), 그 다음이 주방(17.5%)이었다. 당시

14) 월간현대주택. 1985. 주거문화와 생활패턴. 11월호. 44-51쪽: 당시 조사자들 중 66.5%가 단독주택이었으며 33.5%는 공동주택이었음.

한국주거의 재조명

조사자들의 입식 작업대 보급률은 83.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심사의 비율과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야 부엌이지. 그다음이 화장실과 목욕탕, 그리고 방들이지 뭐. 살림살이가 하루 세끼 늘 해먹는 데니까. 생활의 터전이니깐. 안에서 물 사용하고 서서해서 좋구 지금은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부뚜막을 며칠에 한번씩 황토를 세수대야에 걸쭉하게 풀어서 행주에 그걸 묻혀 부뚜막 해진데에 바르고 말렸지. 그러면 부뚜막이 뽀얗게 이쁘게 되지. 솔은 솔 아래 검정이를 들기름 섞어 솜으로 묻혀서 닦으면 솔이 얼마나 반들반들해지는지 몰라. 그러게 일이었지. 지금은 그릇이 깨지는게 있나? 나 일론 바가지에 소쿠리에 다 쓰기 편하고 그렇지. 옛날 대소쿠리는 물을 쓰면 써어서 늘 햇볕에 말려야 하구 또 상도 부엌에서 들구 날라다녀야 하구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옛날 살던 일본식 집 혈구 상가 빌딩 지어서 3층에 살림집 만들어 부엌을 신식 주방 만들었을 때 그때 가스통 놓고 밥할 때 굉장히 좋았어. 1980년이었지. 옛날 산후에는 화장실도 바깥에 있어서 춥고 몸도 매우 아프고 힘들었구 머리감기도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떠서 하곤 했는데 지금은 모두 집 안에서 따뜻한 온수 나오구 하니 얼마나 좋아 사람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이만하면 편하지 불편한게 없어요. 남편도 이제 설거지도 잘해요. 내가 아프거나 집을 비울 때, 혼자서도 잘 차려먹고...”(1929년생. 대전 이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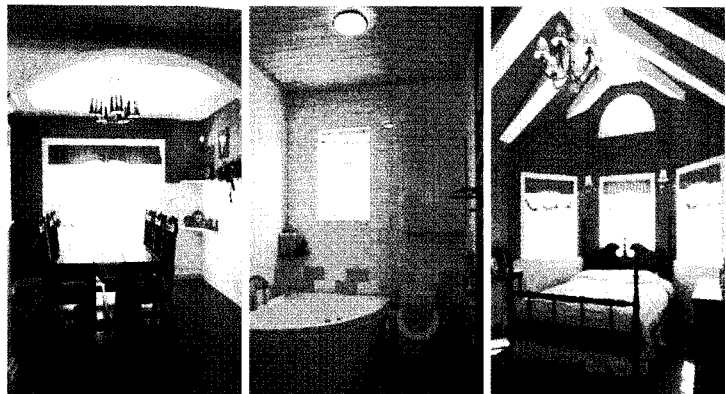
“집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은 첫째가 부엌 다음이 거실 그리고 침실이지요. 부엌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많구 활동하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하구 잘 되어야 하지요.”(전주 주영옥.1957년생)

이와 같이 2006년 당시 70대나 40대 구술자 여성들은 부엌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적 부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20년 전의 실내입식 개조 때와는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주 22평에 거주하는 김경민(1976년생)은 지금의 부엌이 재료 준

비대 공간이 좁고, 거실과 공간분리가 안 되어 있으며 수납공간이 부족하고 싱크대 높이가 낮아서 설거지할 때 불편하고 식탁을 놓을 공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남고은(1953년생)은

“부엌 작업대는 적어도 집이 작지 않은 이상 ‘ㄱ’자 형은 되어야 하구 아일랜드형이 요즘 좋아 보여요. 그리고 부엌은 거실과는 구분이 되어야 해요. 지저분하게 쓰니까 아무래도 수납이 부족해서 전기밥솥이나 커피포트 등 가전제품을 놓다 뺐다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부엌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지금 수납공간이 부족해요. 벽에 붙은 수납장은 제일 꼭대기는 키가 안 닿아 잘 못써요. 다용도 실은 좁아서 뭘 잘 못해. 그래서 김장은 주로 절인걸 아파트 상가에서 사다가 그냥 부엌에서 담아요. 참 올해는 시골에서 절인걸 보내 주었어요. 우리 식구 먹을거 조금이니까. 한 10포기 정도... 김치 냉장고는 부엌에 놓을데 없어서 식탁 주변에 놓았어요.”

부엌의 근대화가 가사노동의 절감을 위한 작업대의 입식화가 우선이었다면 사실 현대적 부엌이란 이론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정의된 부엌의 삼각형 원리, 즉 싱크대, 가열대, 냉장고가 먼저 구비되어야 하고 이의 효율적 배치가 기본 요건이다. 오늘날 중상류 이상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현대적 부엌의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즉, 입식 작업대의 기능적 설비, 편리한 취사연료,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설



▲ [그림 4] 빅토리아풍의 주택 인테리어(익산 소재)

한국주거의 재조명

치, 그리고 시스템 키친 방식의 수납장과 기본적인 취사용 가전제품인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동일 것이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아파트의 30평형대 이하는 ‘—’ 자형 부엌 작업대가 ‘ㄱ’ 형으로, 40평형대 이상은 ‘ㄷ’ 자형 혹은 조반용(breakfast) 식탁이 달린 반도형(penninsula)으로 그 크기가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일부의 부엌회사는 부엌 작업대의 컬러를 도입하여 시판하므로써 부엌에 장식적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상부 수납장에는 휴대용 라디오 등 가사노동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부분적인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되면서 부엌이 주부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었고 이에 따른 부엌회사의 마케팅 성공은 물론 여성들은 그러한 변화를 매우 매력적이라 선도적으로 인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아파트의 대형 평형이 확대되면서 건설회사들은 부엌을 적어도 기존의 부엌이 아닌 거실과 식사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된 인테리어 설비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부엌의 작업대는 아일랜드형이 도입되어 새로운 부엌 공간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공간을 많은 주부들이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호 경향의 주된 이유는 부엌 공간도 매력적인 인테리어의 한 공간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엌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노동의 공간에서 이제는 가족들과의 참여공간이라는 실제적 기능을 아일랜드 작업대가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냉장고와 일부 설비를 다용도 실로 빼면서 오히려 실내 주방의 규모는 다시 줄어든 형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외식산업의 증대와 반 가공된 식품 구매의 사용이 작업대의 규모를 반감시킬 수 있는 근거도 될 것이다. 결국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의한 다양한 변수들은 이제 부엌을 선택하고 디자인하는 지표가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 부엌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구조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윤택림¹⁵⁾은 여성은 여전히 가사를 주도하

고 가정을 관리하는 운영주체라는 인식이 남아있고 한편에서는 남성이 도와줘야 하는 가사 공간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사회적 담론도 이어지고 있지만 부엌과 식탁은 가족이 함께 음식을 해서 먹는다는 취사와 식사라는 실용적인 의미보다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통해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공유의 공간으로서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부엌공간은 변화였지만 부엌일은 오히려 주방에서 주부가 단독으로 가족을 위한 음식 만들기로 한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식산업의 발달과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로 인해 주부들의 음식 만들기는 더욱 줄어들고 있음에도 음식을 만드는 장소인 부엌은 더욱 고급화, 대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과연 백색가전으로 완비된 첨단 주방에서 주부가 자기만의 공간을 찾고, 그 안에서 주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의 상승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아무리 빌트인 키친이라고 해도 현재까지 주방은 주부의 노동 공간인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부엌은 주부에게는 일터인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휴식공간이므로 부엌은 점점 더 여성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¹⁶⁾에 동의하고 있다.

부엌공간이 어느 나라이건 여전히 여성들 중심의 공간이고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부엌에 대한 공간사용의 흥미있는 변화가 보여지는데 미국의 여성 건축가인 사라 수잔카 Sarah Susanka¹⁷⁾는 현대 미국인들의 생활중심은 부엌공간이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올 경우도 거실보다도 부엌에서 대화하는 추세를 제시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의미변화를 지적하였다. 아마 이러한 의미변화가 한국에도 도래한다면 우리의 부엌은 또 한 차례 폭풍을 맞을 듯 하다.

☞ 부엌의 진보는 과연 현대 여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15) 윤택림(2004), 집과 가족의 문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보고서

16) 함한희(2002), 부엌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선택들, 정신문화연구86호

17) Sarah Susanka(2001), The Not So Big House, The Taunton Press Inc.,

한국주거의 재조명

■ 방황하는 현대 남성들

-그들의 안식처는 집인가? 아닌가?-

주거문화에 관심이 있는 전공자들이라면 “집은 사회적 제도”라는 라포포트의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다. 라포포트는 민가 공간의 형태와 구성에 대한 인류학적 시각을 제공하였지만 현대의 집은 토속민가가 아닐뿐더러 집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여 이를 선택하는 거주자들의 지표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집의 공간이 지닌 절대적 기능과 정서만으로는 거주자들의 삶의 행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소속학교는 다르지만 부부교수인 K교수의 남편 C씨가 가장 애용하는 아파트의 공간은 베란다에 마련한 그 만의 작은 서재였다. 램프가 있는 작은 책상하나 놓고 옆에 방석하나 놓은 아주 작고 구석진 공간이 그가 책을 읽거나 휴식하기 좋아하는 유일한 그 만의 공간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인인 H교수는 남편의 이상한 동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국의 대부분의 중산층 남편들의 공통적 행태와 자리 잡기는 아마도 리모컨을 움켜 쥔 거실 TV앞 소파에서 일 것이다. 40대 후반인 G씨는 남편이 퇴근 후 돌아오면 식사 시간 이외에는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언제 부부침실에 오는지조차 모를 정도인데 최근에는 아예 소파 옆에 간단한 요를 퍼놓고 취침까지 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 경우 G씨 남편은 사실 집에 개인의 서재를 갖추고 있는데도 그러하였다.

집이 주는 공간 인지는 물론 위의 사례처럼 집 자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아파트의 철저한 공간나누기와 켜어 맞추기 기능에 의한 공간계획은 기실 가족이라 해도 숨을 쉴 여유가 없는 상사일 수 밖에 없다. 수직과 수평으로 쪼개어 만들어진 공간구조는 내가 아무리 집주인이라 한들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의 변형도 주어진 그 공간적 범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문화인류학자는 현대사회에서 기계와 관련한 사람들의 행위변화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을 하고 있다. 송

도영¹⁸⁾은 기계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은 그에 맞는 문화화 현상을 발생시키며 기계적 장치자체가 갖는 성격도 문화형성에 점차 커다란 비중과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적 행위의 파트너로 기계가 인간을 일부 대체한 것을 말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노래방, 게임방, 오락실 등이 새로운 시공영역으로 직장, 학교, 학원, 가정에서는 평범하고 틀에 맞추어 따라가거나 피로한 소비자들이 ‘방문화’의 공간들에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화려한 주인공’으로 변신하는 데에 대한 새로운 매력에 이끌려가는 동태적 현상을 문화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집의 공간적 제한이나 형태가 그들을 밖으로 내몰아가는 요인인지 아니면 포괄적 범주에서 집의 기능과 정서가 변하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집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지와 태도는 사회적 대다수의 잠재적 강요에 의한 흐름과 강력한 경제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주 선택권, 정서적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미비내지 거의 목살된 제도 속에서는 관습적으로 조장된 위축된 의식이 건강한 집을 획득하고 싶은 열망에의 포기 내지는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한 집의 주인공은 분명 그들 자신이었으나 오늘날 극단적 형태의 집이란 기능적 설비로 세팅된 주인공 없는 기계장치일 뿐일 수 있다는 면이 갑자기 공포로 다가온다. 결국 가정을 형성하는 집에 대한 한국 남성들의 태도는 집 마련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사회적 방어, 재산표식일 뿐 일부의 그들에게는 집이 전혀 창조적이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인 가족생활 유지 외에는 TV라는 기계만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유일함으로 해석함은 지나친 비약일까? 자문해 본다.

☞ 한국 남성들은 집에서 쉴 공간이 전혀 없는가?

아니면 그들은 쉬기를 거부하는가?

18) 송도영(2000), 문화산업의 속도성과 도시적 일상문화 성격의 형성 '방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33-2

한국주거의 재조명

■ 집으로의 회귀

20세기 후반 한국은 집의 유형으로 아파트를 선택하였다. 아파트를 거부하던 일부 사람들도 아내가 좋아하고 경제적 가치도 있으며 교통편의와 핵가족주의의 후기 산업 사회의 기능적 코드에 부합되는 아파트의 선택을 옹호하는 쪽으로 동참하며 비둘기아파트 **호의 집으로 들어서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위안하였다.

80년대 후반 재산 증식의 주 대상이었던 아파트 상품에 대한 회의리 바람이 지나고 90년대 이후가 되면서 과거에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어린 자녀들의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환자들의 증가 등 이상스러운 건강상태를 염려하는 내용이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었다. 학계의 각 분야에서는 생태, 친환경에 대한 학술대회가 대두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환경단체인 공해문제연구소를 모태로 1993년 환경운동연합이 발족되었다. 이러한 단체를 시작으로 학계 및 각 계각층에서 참살이에 대한 각성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한 정책적 제도의 반영은 기업체들로 하여금 주거재료 및 설비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건설회사도 친환경 주거단지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단지설계를 지향하였다. 자동차는 지하로 지상은 복토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분수와 인공적인 실개천까지 만들었으며 방법에 대비한 철저한 출입시설이 만들어졌다. 인위적인 아름다운 단지설계에 반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비싼 분양가에도 기꺼이 합류하였고 이러한 단지에 사는 것에 새로운 자부심을 가지며 이를 환영하고 즐겼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멋진 집으로 이주한 아들딸을 방문한 시골부모들은 철저한 잠금장치와 방문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겁이 나서 찾아가길 원치 않는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 인위적인 단지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단지 전체에 조성된 이러한 인위적 자연물들을 관리하고 설비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잘 모르고 입주한 서민들은 가중된 관리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아파트에서 그 즐거움을 누릴 권리는 누구

에게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면에는 새로운 주거비를 지불해야만 그 권리가 인정된다. 자연과 인공의 차이인 셈이다.

한편 90년대 초 아파트의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절감하면서 전원생활을 찾아 교외로 향하였고 그런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흙집이나, 목조주택, 그리고 한옥에 대해서까지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용인시 양지면. 아기자기 예쁜 집들이 촌락을 이루는 이 마을에 와인매니아 전두환 씨가 살고 있습니다. 한가로운 일요일, 그의 하루는 자신의 집 지하에 있는 와인저장고에서 시작됩니다. [전두환/용인시 양지면 : 일이 없으면 와인저장고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평소 꿈에 그리던 와인저장고를 가지게 된 것은 2년 전 현재의 집으로 이사오면서부터. 아파트 생활이 불편했던 그가 가족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시절. 강남의 아파트를 포기하고 이사를 결심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정숙/용인시 양지면 : 집값이 얼마다, 이런 건 이사오면서 거의 잊어버렸다. 잊으려고 애를 쓴다.]”

오디오 매니아인 이 마을의 터줏대감 최효석 씨.

“친구들이 한창 재테크에 힘을 쏟을 30대 초반에 분당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최효석/용인시 양지면 : 살아가는 게 꼭 돈만 갖고 평가될 수는 없는 것 같고 후회는 안합니다.] 이사 올 당시, 가장 큰 걱정거리로 작용한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교육문제.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도시의 학원보다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이 더 즐거워보입니다.”

[최유진(9세) : 방아깨비는 세동이가 잡아주고요. 많이 재밌어요.]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5] 자연과 가족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

“해가 지고 어슴푸레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 한 켠에선 바비큐 파티가 벌어집니다.

자연 속에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 하기에 어른도 아이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문화시설 하나 없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서울의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시절이었지만 미련 없이 도시를 등진 그들은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석민/용인시 양지면 : 여기에 우리 애들 와서 반딧불도 처음 봤다. 그런 것을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

[유애란/용인시 양지면 : 집을 재산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가족들이 모이는 안식처, 행복한 보금자리로 생각한다.] 세상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이들. 집이란 부의 상징이 아닌 마음을 담은 공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상 출처: 2006-08-04 11:39. SBS

[은퇴한 전직 교장인 K씨 : 그는 은퇴 후 전주시 교외에 아담한 목조주택을 지어 부인과 살고 있다. 텃밭을 일구며 각자의 취미생활을 위해 1층은 부인의 방, 2층은 K씨의 공간영역으로 만들어 독립적인 주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의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쿠파는 주거욕구의 위계질서를 설정하기 위해 매슬로우의 기본적인 인간욕구의 단계를 목록별 수정하여 1. 은신처 2. 안정성 3. 편안함 4. 사회화와 자기표현 5. 미학의 순서로 나열하였다. 이 해석에서는 은신처가 안정성보다 더 우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은신처와 안전성에 대한 주거욕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건축적/물리적 및 사회적/비물질적인 변인들에 의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¹⁹⁾.

위의 사례에서 본 교외 이주자들은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모두 교외의 집에서 실현하고자 열망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또한 쿠파의 말처럼 안정성보다는 은신처로서의 삶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개인보다는 가족의 생활과 행복을 추구하는 더 가치를 두고 이를 실행한 사람들이라고도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교외의 집 자체가 가장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서구에서 발생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교외 이주자들의 행태와 동일한 양상의 환경적 동기를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라는 장소조건의 선택에 대한 상대적 판단의 잣대를 여기서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매슬로우가 지정한 인간의 욕구에 대한 각 단계나 목록의 범주 안에도 무수히 많은 변수와 각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사람마다 이를 판단하는 가치나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자들은 집이라는 곳에서

19) Roderick J. Lawrence 저, 이연숙 외 번역(1999), 주택·주거·집, 태림문화사, 152-153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며 이러한 감정과 정서적 결합은 뛰어난 첨단 기술과 기능적인 설비보다는 있는 그대로 느끼고 호흡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자연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교외로 나간 그들은 무엇을 얻었나? 도심생활의 소음과 물질적 향유 대신 따뜻한 마음과 관계, 기질의 소통을 찾았을 것이다.

■ 집에 대한 우리들의 과제 : 문화적 코드 바로잡기

집은 사유재산인가? 사회문화인가? 당연히 개인에게는 사유재산이고 국가와 사회에게는 중요한 사회자산이자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집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수준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최저의 주거수준 이상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한된 공간 크기 안에서 최소 건강의 유지가 가능한 주생활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전통 주거의 공간 구성은 시대적 지역적으로 가장 공감 가는 최소한의 표준화된 공간규범이 정착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은 법은 계급별 집의 구성과 형태 등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지나침을 경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물적 자원 낭비를 막았던 것이다. 물론 현대에서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집에 대한 성찰은 제도권 밖으로 밀리고 산업사회의 이윤추구에 밀려 결국 오늘날 실내환경의 오염원이 되는 주요 마감재의 화려한 허상만을 키워왔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의 공간구성은 매우 기능적이고 현대적으로 엄청 발전하였지만 정서적인 교감이나 가족친화적인 디테일한 심리적 공간 배려에는 아직도 인색하다.

한편 한국의 교외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집의 형태와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도심에서도 외형적 규정만 제정하여 전통적인 저밀도의 여유 있는 단독주택지역에 난데없이 개발자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원룸이나 다세대집들이 4층으로 올라가 주거환경의 경관을 망치고 있다. 국도를 따라가 보면 과거 멋지고 고즈넉한 산자락의 풍광이

어느새 국적불명의 집들이 형태도 재료도 다채롭게 들어서 실망과 자괴감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한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전략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적인 요리명장들이 초빙되어 여러 곳을 다녔다고 한다. 그 중 전주에도 와서 한정식을 맛보았는데 그들은 이 한정식에 지극히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들은 바 있다. 이것은 주요리(main dish)와 부요리(side dish)가 구분되지 않고 일시에 차려진 그야말로 배부르기 위한, 오로지 양을 위한 상차림 방식에 대한 호된 질타였다고 생각한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는 곧 우리 자신들의 과제이기도 한다. 질적 영양과 건강한 섭취란 대식, 大食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식과 질적 균형식인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집도 성급한 세계화를 외치기 전에 조선시대 한옥의 정형화를 이루어 낸 조상들의 면전에 부끄럽지 않은 집을 위한 성찰과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를 위해 애쓰고 노력한 훌륭한 많은 분들이 있었음은 잘 알지만 집이란 취하고 버리는 일이 가장 어려운 건축물이므로 개인적인 관심만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도시계획과 건축, 그리고 주거와 조경분야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학문분야를 존중하면서 오로지 하나의 목적-우리 한국인의 질적 주거환경-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소통이 된다면 그 꿈과 희망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문화로서의 주거와 주거형태를 얻기 위한 열매는 많은 단계와 시간이 요구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전문가들과 산학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이와 더불어 후손들을 위한 아름다운 환경과 공동체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부적절한 주택소재를 제한하고 기본적인 경관형태의 조합이 가능한 외관과 배치에 대한 적절한 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며 본 글을 맺을까 한다.

☞ 답. TV가 없어서^^